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세상의 소금과 빛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아버지 그중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5:1-9 경쟁을 초월한 승리자가 됩시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359장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통일찬송가 401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찬송가 456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정줄리 권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4:1-44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상급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 8 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속에서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합니다.
- ▶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사역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 갑시다.
2. 오늘 예배 후 정기 섬김위원회가 있습니다.
3. 주일 성경공부(출애굽기) 모임이 계속됩니다. 생명의 삶, QT 나눔과 기도,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4.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니다.
5. 자녀들의 예배와 성경공부, 교제와 행사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청지기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6.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새학기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3 주년 감사찬양집회와 준비를 위한 Relay 기도가 계속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교우 동정

- ▶ 한국방문 / 건강 : 구은강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8/19	8/26	9/2	9/9
	구 민집사	오정은집사	김태성집사	구은강집사
금요일예배기도	8/24	8/31	9/7	9/14
	정줄리권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8/19	8/26	9/2	9/9
	유덕하집사/최선윤집사		구 민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최내권 집사		정줄리권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 요한복음 3:1-16

학식과 높은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생각하며 밤에 찾아왔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상식과 경험의 틀에 매여 깨닫지 못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현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령 세례이다. 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물세례이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니고데모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됐다.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며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어 한다.

경쟁을 초월한 승리자가 됩시다! / 요한복음 5:1-9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께 바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나음을 얻었습니까?

경쟁을 뚫고 얻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경쟁을 초월한 승리자가 됩시다! / 요한복음 5:1-9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의 북동쪽 끝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고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에 왔지만, 문제는 물이 동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데스다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8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아주 오랜 기간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점점 더 악화되는 자신의 병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베데스다 역시 그에게는 더욱 큰 절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셨고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이 병자는 자신을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자가 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병자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밀치고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런 경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열쇠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베데스다 행각의 다른 병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1 등만 병 고침을 받는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 그를 예수님이 찾아 만나주심으로 경쟁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는 다른 사람을 밀치고 놀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1 등이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경쟁을 초월한 1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초월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경쟁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경쟁 강박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Application Note*

삼과 교회

과연 누가 중동의 폭력 사태와 자살폭탄테러와 유혈참사를 중단 시킬 수 있을까?

UN 이나 미국도 할 수 없고 평화회담을 더 많이 열어도 별 진전은 없을 것이다. 무슬림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여 유대인과 화해시킬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슬람을 가르치던 때를 돌아보면 나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꾸란에 세뇌 당했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원천이 평화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무슬림이었을 때, 내게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의 사도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들은 악인들의 마음에서 증오심을 덜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난 후 나는 진실을 받아들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참된 본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평화의 원천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에베소서 2:11-21 을 읽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무슬림을 이겨내고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의 이교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킴을 이해하기 바랬다. 우선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11-13)

무슬림이었을 때 나는 바울이 묘사한 이방인과 흡사했다.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 가까이 오게 만드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 가까이 다가서게 하셨다. 나는 바울이 적은 다음 구절을 좋아한다. 예수께서 서로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화평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14-17)

이 화해의 놀라운 장면이 보이는가? 2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신과 인간은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다.

- 마크 A. 가브리엘 < 이슬람과 유대인 그 끝나지 않은 전쟁 > 중

문제는 당신이 물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잠수복을 입고 있느냐이다. 화살이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화살이 활에서 떠났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완전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갈망하느냐 하는 것이다.

혹시 당신은 사교적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바람과 비를 주셨고, 당신의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주셨다. 놀라운 지성과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들도 주셨다.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당신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시고, 죽음 후에 당신을 받아들여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께 고작 빵 부스러기를 드리는가? 그분이 자투리나 받는 분이신가? 과자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드리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착각하지 말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외형주의에 싫증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나는 그분께 굶주려 있다. 이것은 노인들의 입에서 으레 나올 수 있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다. 이런 저런 책에서 영향을 받아 하는 소리가 아니다. (물론, 성경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내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은 두 가지 뿐인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영적 여행이 나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처에 그분의 백성이 있다. 그들은 성경보다 교리를 앞세우는 것, 가식, 외형주의 그리고 전통에 반기를 든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 성경의 하나님, 즉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인가?

- 십자가에 못 박혀라 / A.W 토저, [우리는 굶주려 있는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